

7/5(화) 느헤미야 묵상 25

느헤미야 13:4-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이에 유다 백성들의 맹세 대로 죄악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첫번째 개혁 과제

느헤미야의 첫번째 영적 개혁의 과제는 이방인 배우자들을 유다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일은 어제 언급한대로 이미 유다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이 맹세는 유이무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6절-7절상,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에 느헤미야는 첫번째 개혁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 배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방 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맹세한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이 개종할 시간을 주었지만 이 맹세는 흐지부지되었고 느헤미야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두번째 개혁 과제 와도 깊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다 사회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죄악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비야의 사건입니다.

두번째 개혁 과제

느헤미야가 행한 둘째 개혁 과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비야의 세간을 빼는 일이었습니다(7-8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가 모르는 사이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유다의 원수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에서 몰래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유다 제사장 엘리야십이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주동 인물입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조롱하고 위협하기도 했고 급기야 편지를 여러차례 보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만 도비야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유다 방백들을 회유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하고 그의 아들도 베레가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유다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게 됩니다(느 6:17-18, **“또한 그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러한 관계를 빌미로 처음에는 유다 방백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느

6:19,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쫓겨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유다 방백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 버리고 그곳을 다시 전과 같이 정화하게 됩니다(8-9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향력과 생존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안으로 쳐 들어오는 주(Main) 도로를 막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샷길을 찾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시기에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서 기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회개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마 16:24,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생각이 이미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충언조차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거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 죄를 멀리하고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합니다(롬 16:19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탄은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엡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같은 영적인 자세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높은 물가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총기 사고 대책 마련, 인종 차별과 아시안 혐오 범죄,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등등 수많은 현안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사랑 그리고 지혜의 마음으로 잘 해결해 가게 하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햄튼 5구역입니다.
-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미얀마 채희철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